

2024.1/4분기 미국 GDP 성장률(속보) 1.6%

1. 2024.1/4분기 미국 GDP

- '24.1/4분기 GDP성장률(전기비 연율)은 소비, 수출,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전분기(3.4%)보다 낮은 1.6%를 기록
  - 개인소비('23.4/4 3.3% → '24.1/4 2.5%)는 서비스\*(3.4% → 4.0%)의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나, 재화\*\*(3.0% → -0.4%)가 감소로 전환되면서 증가폭이 낮아짐 <성장률 기여도: '23.4/4 2.20%p → '24.1/4 1.68%p>
    - \* 헬스케어(49.4% → 35.9%)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금융서비스 및 보험(-2.4% → 20.2%)이 큰 폭 증가
    - \*\* 자동차 및 부품(-2.5% → -13.9%)은 감소폭이 확대되고 여가 관련 재화 및 차량(14.5% → -3.2%)이 감소로 전환
  - 민간투자(0.7% → 3.2%)는 구조물(10.9% → -0.1%)과 재고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2.8% → 13.9%)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데 힘입어 증가폭이 높아짐 <성장률 기여도: 0.15%p → 0.56%p>
    - \* 재고투자의 성장률 기여도: '23.4/4분기 -0.47%p → '24.1/4분기 -0.35%p
  - 순수출은 수출(5.1% → 0.9%)의 오름폭이 축소된 반면 수입(2.2% → 7.2%)은 확대되면서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로 전환 <성장률 기여도: 0.25%p → -0.86%p>
  - 정부지출(4.6% → 1.2%)은 연방정부의 국방(0.5% → -0.6%) 및 비국방(4.8% → 0.3%) 지출과 함께 지방정부(6.0% → 2.0%) 지출도 오름폭이 낮아지면서 증가세가 축소 <성장률 기여도: 0.79%p → 0.21%p>

(%, 전기비 연율)

	2022					2023					2024
	연중	1/4	2/4	3/4	4/4	연중	1/4	2/4	3/4	4/4	1/4
GDP	1.9	-2.0	-0.6	2.7	2.6	2.5	2.2	2.1	4.9	3.4	1.6
개인소비	2.5	0.0	2.0	1.6	1.2	2.2	3.8	0.8	3.1	3.3	2.5
민간투자	4.8	6.2	-10.6	-7.6	3.4	-1.2	-9.0	5.2	10.0	0.7	3.2
비주택	5.2	10.7	5.3	4.7	1.7	4.5	5.7	7.4	1.4	3.7	2.9
(구조물)	-2.1	-1.2	-0.5	-1.3	6.5	13.2	30.3	16.1	11.2	10.9	-0.1
(설비)	5.2	16.8	4.9	5.6	-5.0	-0.3	-4.1	7.7	-4.4	-1.1	2.1
(지식재산생산물)	9.1	11.4	8.7	7.1	6.1	4.5	3.8	2.7	1.8	4.3	5.4
주택	-9.0	-1.8	-14.1	-26.4	-24.9	-10.6	-5.3	-2.2	6.7	2.8	13.9
재고증감 <sup>1)</sup>	0.62	-0.07	-2.05	-0.66	1.61	-0.34	-2.22	0.00	1.27	-0.47	-0.35
순수출 <sup>1)</sup>	-0.48	-2.59	0.56	2.58	0.26	0.57	0.58	0.04	0.03	0.25	-0.86
수출	7.0	-4.6	10.6	16.2	-3.5	2.6	6.8	-9.3	5.4	5.1	0.9
수입	8.6	14.7	4.1	-4.8	-4.3	-1.7	1.3	-7.6	4.2	2.2	7.2
정부지출	-0.9	-2.9	-1.9	2.9	5.3	4.1	4.8	3.3	5.8	4.6	1.2
GDP 디플레이터	7.0	8.4	9.1	4.5	3.9	3.6	3.9	1.7	3.3	1.7	3.1
근원 PCE상승률	5.2	6.0	4.7	5.0	4.7	4.1	5.0	3.7	2.0	2.0	3.7

주: 1)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p)

자료: BEA

작성자: 임태균 과장

## 2.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 시장에서는 '24.1/4분기 GDP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재고투자 및 순수출 기여도로 인해 컨센서스(2.5%)를 하회하였으나, 민간지출\*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평가

\* Final sales to private domestic purchasers(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판매 %):  
'23.2/4 1.7 → 3/4 3.0 → 4/4 3.3 → '24.1/4 3.1

- 향후에는 그간 누적된 통화긴축의 과급효과, 고용시장 둔화 등으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성장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
- 한편, '24.1/4분기 근원PCE 물가상승률(3.7%, 전기비 연율)이 시장 컨센서스(3.4%)를 상회함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

### <주요 투자은행 등의 코멘트>

- **(Morgan Stanley)** '24.1분기 성장률은 소비 둔화, 교역 및 재고투자 기여도 하락으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다만 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판매는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재고투자 축소는 향후 기업의 재고 확충을 통해 성장률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1분기 근원 PCE 물가도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짐
- **(Barclays)** 재고투자와 개인소비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성장률이 기대치를 하회. 반면 근원 PCE 물가는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졌음. 올해 연준의 금리인하 횟수는 1회를 전망하며, 인하시점은 9월을 예상하나 인플레이션 하락이 예상보다 더딜 경우 12월로 늦춰질 전망
- **(CITI)** GDP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장에 대한 재정지출과 재화 소비의 지지가 약해졌음.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주택수요가 위축되어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주택투자도 축소될 전망. 이에 따라 성장둔화가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더라도 연준이 금년 여름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
- **(ING)** 경제지표와 달리 경영서베이 결과에서는 고용 및 임금상승 둔화, 투자축소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차입비용이 더욱 높아진다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물가상승 압력도 낮아질 것임. 이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
- **(SEB)** 1분기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았지만 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판매가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세부적으로는 GDP가 강한 모습을 보임. 성장과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된다면 미 연준이 올해 두 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